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 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편집자 주〉

도민의 신뢰 바탕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농협 구현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고용환경 개선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 적극 호응

전국농업 선도하는 농도전남 농업 발전 위해 모든 역량 결집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발전과 농사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농촌사랑과 식생활 개선운동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사회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농협은 또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사업부문은 크게 농업경제부문과 축산경제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농축산물 판로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협의 금융사업은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남농협 운영 목표와 방향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 농협은 지난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라는 범농협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을 달성함으로써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희망농촌을 만든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고민하고 행동하는 역동적인 전남농협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인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행복이 가득한 전남농협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민의 복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농협이 되도록 한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우리 농협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국민들께 제공해 드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선제적인 수급대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품목별 광역연합사업 확대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질 좋은 전남 농축산물을 제 값 받고 판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파종기부터 사전적 수급조절을 실시하겠다. 또한 상반기 실시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통해 쌀 값 지지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친환경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 전남대학교, 나주시와 남해화학, 전남농협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나주에 단지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해 '친환경농산물 1번지' 전남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방안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문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도농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 명예이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명예이장단 협의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을꽃밭(꽃길) 조성, 벽화그리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 도시민이 휴양과 힐링을 위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전개해 우리문화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원으로 활용하겠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다양한 혜택들을 널리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농협,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농협 구현 계획

농업인은 물론 농업인 단체, 그리고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소비자와 고객이 믿고 찾는, 신뢰 받는 전남농협을 만들겠다.

고령화·부녀화 된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농작업 전담인력을 연중 운용하여 전문화된 농작업 대행사업의 성장모델로 발전시키겠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해 나가겠다.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 예방활동을 지자체와 함께 연중 상시 전개하겠다. 지금처럼 체계적인 방역활동이 1년 365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또한, 가뭄,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농업인행복콜센터' 활성화로 홀몸노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최남규 기자

"농업·농촌·농민이 행복한 전남 건설에 힘 보탤 것"

박 태 선 본부장

박태선 본부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와 동국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농협에 입사했다. 그동안 중앙본부 상호금융기획부 과장, 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팀장, 중앙본부 상호금융기획부 팀장, 서울영업본부 남영동 지점장, 해남군지부장 등을 지냈다.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청년실업 문제는 범국가적인 이슈로 정부가 총력을 집중해 해결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농협도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전반기에 이미 일선 농협이 직원 채용을 마친바 있고 하반기만 하더라도 기간제 요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노사관계는 어떠한가요

-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 사소한 마찰이나 불협화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현성되기까지에는 노조의 열린 마인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겠다는 소신이 확실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도 이에 걸맞는 대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렇게 서로 가려운 부분을 미리 알아서 터치를 해주니 분란의 소지가 애시당초 제거되는 셈이죠.

▶하반기 역점을 둔 사업은 ?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협별 1건 이상의 특색사업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고소득 작목 육성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 생산비와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농업인 중심의 실익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농협 도단위 쌀광역 브랜드인 '풍광수토'에 대한 고가 브랜드 정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과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 우리 전남농협은 협동조합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마음(農心)을 전남농협 임직원의 가슴에 담고 농업·농촌과 농업인, 그리고 고객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농도 전남의 농업 발전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농협을 믿고, 농협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 앞으로도 저와 직원 모두는 열린 마음으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임할 생각입니다. 특히 전남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과 더불어 전남 농촌과 농업인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미래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생활 속 노조 구현"

안 종 팔 노조위원장

안종팔 전남지역 노조위원장은 순천 출생으로 조선대 법대, 목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9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4급 팀장, 노동조합 전국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치러진 선거에서는 초선임에도 96.7%의 전국 최고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발전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 변화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새의 좌·우의 날개처럼 노·사가 얼마나 하나로 뭉치느냐에 달려 있으며, 때로는 냉정하게 경영진을 비판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경영진과 협력하면서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분기별 노사간담회와 상·하반기 노조간부 간담회, 분회장 회의와 여성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견취합은 잘되고 있으며, 취합된 의견은 조합운영시 잘 반영되고 있나요?

- 선거 캐치프레이지가 "생활 속의 노동조합, 희망을 주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농협은 여러 법인으로 나눠졌지만 노동조합은 여전히 하나인 '다사일노조'의 형태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매분기마다 51개 분회를 한 차례이상 방문과, 매일 20명의 조합원에게 전화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만큼은 관철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 우리 농협중앙회는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승진고시 제도가 있는데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승진고시가 폐지됩니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이 올해 합격하려고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공부방 설치와 특별강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노사관련 미담사례

- 올해 6월말 양파수확을 위해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함께 봉사활동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본부장 사택을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처음으로 경영진 사택을 방문하였던 것이지요. 사석이니 서로 존칭 없이 형님 동생하면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 저는 생각은 진보를 유지하되 활동은 조합원의 생활 속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보수적 색채와 경직된 상하관계는 지워야 합니다. 전남이 크다보니 동부권, 서부권의 교류가 부족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와 법인별 간담회를 생활화 할 것입니다.

최남규 기자